



6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소태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광주시는 오는 9일 해당구간 사업자인 맥쿼리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요금을 5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700억 혈세·전국 민자SOC 방향타

뉴스초점 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 9일 항소심 결과 전국이 주목

광주시가 6700억원대의 '시민 혈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했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투자를 철회한 맥쿼리가 이번 사업부의 판단에 따라 광주제2순환도로를 비롯한 전국에 투자한 13곳의 사업 철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지자체들도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맥쿼리가 지난 2003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매입한 뒤 타인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킨 반면 자기자본 비율을 축소하고, 이자율을 높여 2012년까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지원금만 1393억원을 쪼개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킨 뒤 자신(맥쿼리)으로부터 10~20%짜리 고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1997년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 협약 당시 조건으로 내건 '적자의 85%까지 광주시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승소편
시민혈세 수천억 지키고
전국 13개 민자사업장
맥쿼리 철수 가능성도

이러한 맥쿼리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장법률사무소 등 국내 대형 로펌 2곳에서 1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인 광주시는 민변 소속 등 4명의 변호사로 방어에 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양상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1, 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이번 판결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광항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토록 지시해 시작했다. 시는 승소시 현 1200원(승용차 기준)인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을 최소 500원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의 빔틀을 교묘히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을 민간 투자자의 것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나가는 수익구조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러한 맥쿼리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장법률사무소 등 국내 대형 로펌 2곳에서 1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인 광주시는 민변 소속 등 4명의 변호사로 방어에 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양상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1, 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이번 판결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광항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토록 지시해 시작했다. 시는 승소시 현 1200원(승용차 기준)인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을 최소 500원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의 빔틀을 교묘히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을 민간 투자자의 것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나가는 수익구조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통일은 대박...설 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

박근혜 대통령 신년 정국구상 기자회견... 개헌·특검·개각 부정적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설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4·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맥쿼리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장법률사무소 등 국내 대형 로펌 2곳에서 1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인 광주시는 민변 소속 등 4명의 변호사로 방어에 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양상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1, 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이번 판결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광항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토록 지시해 시작했다. 시는 승소시 현 1200원(승용차 기준)인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을 최소 500원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의 빔틀을 교묘히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을 민간 투자자의 것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나가는 수익구조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이번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북한 지도자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이 되고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정치적 이슈인 개헌과 특검, 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기준이 이미 있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자꾸 위원회만 만들고 해서 큰 성과를 볼 수 없다”면서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 대타협이 (기준 노사정위원회) 여기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 예산 348억원 전액 삭감

광주시 사업계획 수정 나서

광주와 서울, 마산 등 3개지역으로 분산 설치될 예정이었던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6일 광주시와 민주주의 전당 마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당 건립 예산으로 잡혀 있던 정부 예산 148억원(서울 전당 건립비 146억원, 광주·마산 전당건립 운영비 2억원)과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국회 예결위에 올라온 광주와 마산 전당 건립비 각 100억원 등 200억원 모두 최종 삭감됐다. 기획재정부에서 광주와 마산의 전당 건립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

았다며 예산 추가 반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전당이 서울에만 건립될 것을 우려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 148억원의 통과마저 막으면서 전액 미반영됐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예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민주주의 전당 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올해 말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문흥동 광주교도소 부지(10만8423㎡)를 법무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건립계획을 다시 짜야할 형편이다. 여기에 법무부에서 호남지역에 구

소소가 한곳도 없다는 논리를 들어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당 착공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4년도 제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2014년 1월 10(금) ~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2

www.dorip.ac.kr

100만원 이하 등록금 실현

전남도립대학교

왜! 전남도립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 ▶▶ 100만원 이하 등록금 (인문계 86만원, 이공계 99만원)
- ▶▶ 산·학·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100% 취업 지향
- ▶▶ 풍부한 장학혜택 (수혜율 100% 이상)
- ▶▶ 쾌적한 시설의 기숙사 (학기당 20만원)
- ▶▶ 광주 및 전남·북 인근지역 무료 통학버스 운행 (격주간 서울·전주 노선버스 운행)

전남도립대학교 Jeonnam Provincial College

517-80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곡로 152
Tel. 061-380-8461 ~ 5 Fax. 061-380-8508
입학상담안내 : 061-380-8462-5